

홍천시의어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2년 8월 (제99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운재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복지관 소식

한국전력공사 강원지부 / 만원의 힘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한국전력공사 강원지부>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에서는 다가오는 중복을 맞이하여 7월 19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본부장 박창기)의 후원으로 이용회원과 지역 어르신 250여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하였다.

또한, 와우정(대표 염요섭)에서 수박 10통, 흥천인삼떡마을(대표 이경숙)에서 절편 4말을 후원하여 풍성한 중복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대한미용사회(권금춘 회장)에서는 자원봉사를 진행하였다.

박창기 본부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운재 관장은 “금번 행사는 중복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후원과 자원봉사를 함께 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만원의 힘>

홍천군노인복지관 만원의 힘 후원모임(회장 송의순)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삼계탕 및 건강식 꾸러미 나눔행사』 하였다. 삼계탕·육계장·설렁탕·사골곰탕 각각 100개, 흥천사과즙, 쌀국수 200개, 구운김 100개를 서면·두촌면을 포함한 8개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홀몸어르신 100명에 전달하였다.

만원의 힘 송의순 회장은 “장마와 더불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에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만원의 힘 회원 222명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송의순 회장과 회원들은 직접 흥천읍과 영귀미면의 대상자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안부도 여쭙고, 말벗도 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운재 관장은 “지역 나눔의 실천을 몸소 실천해 주고 계시는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밝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홍천군노인복지관도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홍천군노인복지관-수타사 신도회,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은 6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수타사 신도회(회장 오승훈)와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촌면 외 4지역의 18명 어르신 가정으로 장관, 도배, 방문교체, 샷시, 벽수리, 전등교체, 타일시공, 화장실 설치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거환경개선으로 빗물받이를 지원 받으신 어르신은 “이제는 더이상 비가 바닥으로 안 새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음을 지어보이셨다.

또한, 이동식 변기를 지원받으신 어르신은 평상시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라서 매일같이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수타사 신도회(회장 오승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기장판, 이불, 가스레인지 등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CONTENTS

- 02 - 베이비붐 세대의 삶
- 03 - 홍천군민의 날
- 04 - 지역소식(홍천의 명품 옥수수)
- 05 - 인물탐방(강정식 시인)
- 06 - 미래금융·치매예방
- 07 - 인생칼럼
- 07 - 평생학습(리코더 앙상블)
- 08 - 행복나눔 빨래방
- 08 - 홍천 여름 축제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원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누가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족인가?

요즘을 핵가족시대라고 한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족의 기본구조이다. 과거에는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그런 형태의 가족은 드물다. 5-60년대만 해도 조부모, 부모, 대여섯 명의 자녀들, 거기다 도시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온 친척들로 인해 집안은 늘 북적였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집단'이다. 법적 정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식구)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이 이미 부부 가정이거나 단독 가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0년 1인가구 31.2%, 부부가구 16.8%인데 2050년이면 1인가구 39.6%, 부부가구 23.3%로 된다. 이는 전체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가 생겨난다는 것이며 이 노인가구의 상당수를 베이비부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족과 식구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면서 식구인 경우는 범위가 아주 좁다. 2020년 1인가구는 39.6%, 2인가구는 28.0%인 상황에서 식구의 개념은 무의미해졌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서 2050년에는 1인가구 39.6%, 2인가구 36.2%에 달하게 된다. 10가구 중에 7-8가구는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형태이다. 노년의 외로움이 더욱 짙어진다.

개인 세대로서의 베이비붐 세대의 서글픔

P씨(66세)는 비록 노년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다. 열심히 벌어서 산 강남의 아파트가 몇 십 억 하는 큰 재산이 되었고 연금과 금융수익이 사는데 어려움 없을 정도로 매달 들어온다. 남들이 보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는 사는 재미가 없다. 자식이라고는 곧 40세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다 아직 미혼이다. 결혼만 한다면 지금 있는 아파트라도 팔아서 작은 신혼살림 아파트라도 장만해줄 의향이 있다. 아내는 신붓감을 대고 또 대다가 이제는 지쳤다. 주변에 더 부탁할 염치도 없다. 낼모레 70인데 언감생심 손자 안아볼 꿈도 못 꾸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자식자랑 손자자랑으로 침을 튀기는 친구들이 눈꼴서서 애꿎은 술잔만 기울이다 집에 돌아와서 죄 없는 아내에게 화풀이하기 일쑤다. 풀 보기 싫어 원룸 구해줘 내쫓은 아들을 다시 불러들일까 하는 마음이 가끔 들 정도로 그는 부쩍 외로움을 탄다. 이 나이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에 장탄식이 절로 난다.

N씨(62세)는 올 초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 병원비 하느라 농사짓던 밭을 반이나 넘게 팔았고 겨우 혼자 지을 정도의 농토 약간이 남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컸던 베이비붐 세대

남편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밭을 살 때마다 아내 이름으로 샀다. 일찍 죽을 것을 알아서였을까?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둘이서 열심히 농토를 일궈왔는데 이렇게 즐지에 죽고 나니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땅이 있으니 기를 쓰고 살면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하며 마음을 추슬렀다.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은 자식들 눈치가 보여 팔아서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나눠 주었다. 땅 많아야 일거리만 많고 고생이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제 남편과 막 돌 지난 외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다. 남편 장례 때 오고 처음 오는 것이다. 혼자된 제 어미가 신경 쓰여서 왔거니 했다. 한참을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뚝뚝 울더니 자기네 근처로 이사 와서 아이 좀 봐달란다. 어린이집은 믿을 수 없네 어찌고 하면서. 이제 농사일 그만하고 좀 편히 지내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위 딸이 가관이다.

'외로우실 테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얼마 안 되는 땅 팔아서 제 집 근처로 와서 애보게 하라는 말이다. N씨는 비록 혼자 됐지만 이 나이에 숨 막히는 도시에 가서 손자나 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는 시집와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고향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 아닌가.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 이 영감 태기는 그렇게 속절없이 일찍 떠나가지고는....

L씨(67세)는 평생을 운전사로 살아왔다. 안 끌어본 차가 없을 정도다. 정말 어렵게 모아서 덤프트럭 한 대를 사서 운전을 했다. 제법 일거리가 많았었는데 건설경기가 바닥으로 내려앉으며 어려움이 닥쳤다. 설상가상으로 차에서 내리다 밭을 헷디며 허리와 발목을 다쳤다. 나이 탓인지 영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어떡해든 버티려했지만 도저히 덤프트럭을 운전할 상태가 아니었다. 트럭을 팔아치우고 집에 들어와 치료에 집중했다. 수입이 없어지니 아내가 식당 일을 나갔다. 설거지 일인데 전골그릇 닦기가 제일 힘들다. 과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아내를 마사지 하는 서비스는 L씨의 몫이다.

요즘 L씨는 부끄러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작년에 형님을 떠나보내고 혼자된 형수가 중풍에 걸렸다. 그



◇한 장의 흑백사진 속에 담긴 베이비붐 세대 가족

동안 형님 내외가 모시던 어머니를 형수가 더 이상 모시기 어렵게 되었다. 어렵게 말을 꺼내는 형수에게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셔야 하지만 자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어머니를 여태까지 형님 내외에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욱 부끄러웠다. 자식들에게 의논해 봐야 심중팔구 양로원 보내드리라는 말이 나올 텐데 정신이 멀쩡하신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쳤을 때 병실에 몇 번 들랑날랑하던 자식들이 퇴원 후에는 가끔 전화만 하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 돈벌이 할 때는 제법 자주 오더니 이제 아주 밭을 굶다시피 했다. 손이라도 벌릴까봐, 자칫 불구자 아버지 떠맡을까봐 염려가 되서인가. 품 안에 자식이라고 했던가? 그저 자식새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면 다 인줄 알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참 바보처럼 살아구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서운해 할 여유가 없다. 당장 어머니 모시는 일을 결단해야 하지 않는가.

가족의 해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앞날

가족은 단단한 울타리였고 위로의 쉼터요 회복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가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전의 어느 세대보다 처절하게 가족의 해체에 직면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을 양팔로 다 붙잡고자 하지만 부모는 힘이 없어 놓치고 자식은 뿌리치고 떨어져 나간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족은 있지만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날이 길어만 지고 있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hanmail.net)

홍천군민의 날

“8월 4일은 제39회 홍천군민의 날”

홍천군민 주인 시대에 맞춰 알찬 진행 모범 군민 표창, 식·전후 행사 등 다양

제39회 홍천군민의 날 행사가 8월 4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린다.

이 날 행사는 14시 30분 식전행사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19시에는 제6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와 연계하여 인기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3년 만에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일정은 내빈소개영상, 개회, 군수·의장·읍면장·단체인사 소개, 군민현장 낭독, 군민대상 시상,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념사, 축사, 축하 메시지 낭독, 군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이어진다.



신영재 홍천군수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수가 만들고 싶은 홍천이 아니라 군민들이 살고 싶은 홍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신영재 군수를 맞이한 홍천군민들은 더욱 뜻 깊은 ‘홍천군민의 날’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홍천군민의 날은 1983년 8월 30일에 홍천군 조례 제 890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전 군민이 이 날을 다 함께 경축하고 유구한 전통과 선현의 얼을 기리며 향토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협동정신을 북돋우며 선진국민상 정립’에 목적을 두고, 5월 8일로 날짜를 정했다.

제정 당시 한서문화제 개최일을 군민의 날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있다.

이후 매년 5월 8일에 기념식 및 문화 체육행사 등 각종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이 날이 홍천군민과의 역사적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바쁜 영농철로 군민들이 축제의 날로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2011년 군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896년 전국 13도제가 되면서 강원도 홍천군이 된 날 8월 4일을 홍천군민의 날로 개정하게 됐다.

홍천군청 석미경 홍보담당은 “홍천군민의 날의 주인공은 홍천군민이다. 코로나19와 변종 BA.2.75 켄타우로스가 극성을 부리는 속에서도 우리 군민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일해 오셨다. 바쁜 일손을

잠시 놓으시고 홍천의 삶을 만족하시며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천군청 행사담당 박혜진 주무관은 “우리 군에는 군민현장과 군민의 노래가 있다. 민선 8기 군정구호와 군정비전 및 군정목표와 어우러지며 군민이 주인 임이 발현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홍천군이 알차고 활기찬 지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홍천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한 어르신은 “나라에 국경일과 명절이 있듯이 우리 홍천에는 ‘홍천군민의 날’이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날이 홍천군 전체 주민의 공휴일이 됐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홍천군민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홍천군민현장·홍천군민의 노래

홍천군민현장

우리는 홍천 정명 천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홍천의 주인으로서 다가올 새천년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는 보리울 무궁화의 나라 사랑 정신과 맑고 깨끗한 홍천의 자연환경을 계승 보존하고 풍요로운 복지, 환경, 교육의 홍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홍천의 주인이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함께 홍천 발전을 이룬다.

하나,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과 복지를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홍천을 빛낼 인재 양성과 평생 교육 사업에 적극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홍천 문화예술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우수한 농촌 먹을거리를 바탕으로 하여 관광 휴양 도시를 창조한다.



홍천군민의 노래

(1절)
팔방산 한자락 홍천강에 발 닿으면 찬란한
천년 역사 명경에 다 비치네
넓은 땅 높은 산 아래 모두가
하나되어 살아가는 곳
홍천은 우리의 사랑이여
홍천의 큰 강 물줄기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왔어라

(1절) 후렴
아아 보리울 피어난 무궁화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홍천

(2절)
하늘 땅과 사람과 어우러져 사는 곳
홍천에 기쁨있어 사람들 모여든다네
넓은 땅 높은 산 아래 모두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곳
홍천은 우리의 희망이여
우리는 홍천의 주인이여
아아 홍천의 큰 강 물줄기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왔어라

(2절) 후렴
아아 보리울 피어난 무궁화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아아 홍천의 큰 강 물줄기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왔어라
아아 보리울피어난 무궁화처럼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홍천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강원도에서도 ‘홍천옥수수’가 최고



한여름과 옥수수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주 친근한 단어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 우리들의 입맛을 돌우워 온 옥수수. 땀글 땀글 옥수수 알맹이가 가마솥에 푹 삶아져 입안에서 ‘톡톡’ 터져 나오는 쫄득한 그 맛은 한 여름 우리들을 행복감에 빠지게 한다.

매년 옥수수철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변의 조그마한 상점 앞에는 손님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그곳은 메뚜기도 한철인 듯이 옥수수를 사 먹으려고 피약벌에 줄을 서서 30분 이상을 기다린다. 심지어 대기표까지 받고 기다릴 때도 있다.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주변에 옥수수 파는 곳이 많은데 이 더운 날씨에 줄까지 서가며 힘들게 옥수수를 사십니까? 했더니 그 손님은 여기 옥수수는 다른 곳에서 파는 것과는 달리 ‘찰지고 쫄득쫄득 아주 맛있다’며 엄지척을 해보이신다.

과연 무엇이 다른걸까? ‘옥수수 맛이 거기서 거기’...

궁금한 마음에 나도 40분을 기다려 가마솥에서 바로 꺼낸 옥수수 한 봉지를 5,000원에 샀다.

주인장 하는 말.. 자-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먹지 못합니다..한다

기대반 호기심 반으로 옥수수 한 개를 물은 순간 입에 착 감기는 쫄득한 옥수수 맛에 매료되어 정신 없이 한 개를 푹딱,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3개를 다 먹어치우고 아쉬운 마음에 더 구입하려 갔더니 그 사이에 또 줄이 길어져서 다시 줄을 서야만 했다.

시장에 널린 게 옥수수 파는 곳인데 왜 유독 저

가게의 옥수수만 인기가 많은지 옥수수를 삶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그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게 여쭙보니 “새벽에 홍천 현지에서 바로 따서 가져와 바로 삶고, 삶은 옥수수를 식히면서 파는 게 전부”라고 하셨다.

그런데 왜 다른 곳의 옥수수와는 맛이 다른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옥수수 가게가 문을 닫을 무렵 판매자 분을 다시 찾아가 어느 지역에서 옥수수를 가져오는지 물으니 “강원도 홍천에서 직접 가져오신다고 하시면서 옥수수하면 역시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홍천 옥수수가 최고다.”라고 하셨다.

나도 홍천 두촌면으로 귀촌한지 2년이나 되었지만 우리 홍천 옥수수가 이렇게까지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줄 몰랐다.

이 옥수수를 중간 상인 거치지 않고 직접 판로를 만들어 유통 과정을 줄여 우리 홍천농부가 판매 일정에 맞혀서 직접 재배하면 홍천에서 나온 옥수수를 당일 서울에서 먹을 수 있다면 농부도 좋고 서울 시민도 좋다는 생각에 직거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장님에게 알리고 궁금한 마음에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을 찾아가 왜 홍천옥수수가 유명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국 옥수수생산은 1만5000ha이며, 이 중 강원도가 5000ha가 생산되는데 강원도 옥수수 생산 전체 면적의 1/5이 홍천군에서 재배된다.”고 한다.

“지난 한 해 홍천 찰옥수수 총 재배면적은 972ha, 농가수는 5602가구, 생산량은 9843톤 매출액 147억6500만원을 올렸다.”며 올해는 총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1,022ha에 찰옥수수만 9,106톤을 생산할 예정이어서 168억63000만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1992년에 이미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옥수수 전문연구소를 설치했고, 육종 재배실과 가공이용 연구실, 관리실, 시험포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구관과 연구사 등 직원이 다수확 우량 옥수수품종의 육성을 위한 재배연구와 찰옥수수 저장법 개발, 유통구조 개선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해서 보급하기에 이런 맛있는 옥수수를 개발 유지하고 있다.

홍천 찰옥수수는 대부분 지난 2005년 개발해 보급한 미백 2호이다. 전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의 1/2이 미백 2호라고 한다.

그럼 홍천 옥수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

강원도 홍천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깨끗하고 맑은 청정의 산과 지형이 높은 관계로 낮과 밤의 일교차도 심하고 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온도 때문에 옥수수의 참맛인 쫄득쫄득한 찰기와 구수함을 만들어준다.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발 200m-700m에서 재배되는 싱싱하고 찰진 단맛을 품은 홍천 찰옥수수가 생산되어지는 것이 많다.

홍천군 두촌면 괴석리 바회마을, 해발 700m의 내면 광원리 옥수수. 그리고 두촌면 원동리의 옥수수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이는 홍천찰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의 밤낮 온도차가 평균 12도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옥수수와 달리 더 쫄득하고 단맛이 풍부한 이유일 것이다.

특히 홍천찰옥수수는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아 이슬에 젖어 물기가 있는 이른 아침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 맛이 더 느껴진다고 한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인물탐방

세계문학상 수상 작가 강정식 시인 방문기



◇강정식 시인이 세계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홍천실버신문에서는 향토시인이자 홍천예총회장을 역임했으며 국가기록원 심사위원인 강정식 시인을 인터뷰했다.

강정식 시인은 홍천군청 농업지점장에서 정년 퇴직 후 홍천문인협회 회장과 강원문인협회 감사·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과 전국 펜 문학회 회원, 강원 펜 문학 운영위원으로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밖에도 홍천향교 전학 전의 명륜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홍천문화원 창립 회원과 임원(이사·부원장)으로 활동하고 현재는 홍천신문 고정칼럼(기고문)을 매주 1회 15년간 총 540여회를 연재하고 있다.

2020년에는 그 동안 연재했던 기고문을 한데 엮어 "홍천 삶이 70년" 책을 발간하고 그 후편으로 "무궁화 큰 잔치 화합의 한마당"을 발간하기 위해 편집 중에 있다.

- 강시인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방문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요즘은 앞에서 기술한 내용 같이 홍천신문에 연재했던 기고문을 모아 OO책으로 내고자 편집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이나 9월경이면 책이 나올 겁니다.

- 책 제목이 무엇인가요?



"무궁화 큰 잔치 화합의 한마당"이에요.

좀 길지요. 이 제목에는 사연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설명 드리지요.

- 강시인께서는 문화원 창립회원이고, 임원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문화원에 대해 말씀한 마디 해 주시지요.

그러지요. 1976년 5월 지금의 홍천관광호텔 위치에 중앙극장이 있었지요. 1층 사무실은 임대해서 창립총회를 치렀고 초대회장에 박진명(작고)씨가 추대되었지요. 당시 저는 창립 멤버였구요. 그 후 김관원(작고) 원장이 재직하였을 때에 저는 이사로서 역할을 다했지요. 그후 김상욱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에 저는 부원장을 6년 역임했으며 그 이후에 허기영, 김병국, 김종은 원장으로 역할이 있었지요.

- 부원장으로 재직시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요?

김상욱 원장의 직업이 의사로서 원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실무 상임 수석부원장으로서 제가 일을 도왔지요.

-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 드리지요. 먼저 두촌에 있는 줄 장루이 프랑스 군의관에 대한 추모행사를 군 단위로 격상시켰어요. 그 당시 면에서 소규모 추모행사를 진행했는데 김 원장으로 재직시 군과 협의해서 보조지원도 받고 문화

원이 주관이 돼서 군 행사로 정착시켰지요.

그리고 서석에 있는 동학군전투로 희생된 800명 농민혁명군 추모식 역시 그러했어요. 당시 서석면에서 소규모로 올리는 제례를 군 단위로 추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남면 제곡 태생 무용가 최승희가 홍천 태생이라는 확증을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증좌시켰지요. 보람 있는 일이었지요.

- 부 원장시절 홍천문화원이 전국문화원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2009년 허기영 원장시절에 저는 문화원 부원장 역할 공로로 수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홍천문화원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장관 세 명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 문화원지 회보에도 크게 나오기도 했지요.

- 문학인으로서 상도 많이 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인가요?

상은 많이 받았지요. 우선 홍천 문학상, 강원문학상, 강원펜문학상, 초허 김동명문학상, 그리고 4월에 받은 세계 문학상이 있지요.

- 문학상을 탈 때 좋은 일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2016년 강원문학상을 받을 때 상금 500만원 전액을 문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어요. 그 이전에 홍천문학상 상금 100만원도 포함해서요.

- 홍천문화원의 창립회원으로서 문화원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네, 홍천문화원은 14대째 원장님께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지요. 14대째로서 7번째 원장입니다.

저는 47년 이사, 10년 부원장을 역임했고, 원장선거시에 한두번이 아닌 다섯 번이나 고배를 마신적이 있지요. 허기영 원장 양보 한 번 선거 두 번 김병국 원장에 선거로 패했지요.

그 후 김종은 대 선배님 농고 1회에게 양보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현 원장인 박주선 농고 9회 원장에게 또 양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2번 양보 3번 다섯 번 낙선 했지요.

- 마음고생이 컸겠습니다.

허 허 그런가요. 앞으로 양보 추대의 좋은 점을 계속 이어 갔으면 합니다.

- 끝으로 금년 현 원장이 임기 만료가 돼서 원장을 새로 뽑는다는데 뜻을 두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문화원 일을 근사하게 해 보고 싶지요. 이번에도 선거로 가지 말고 추대로 해야 합니다. 추대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미국은 중앙은행을 허락했을까?

미국은 모든 분야 최고의 강대국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금융패권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미국에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유럽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러한 미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의 금융 성장 이야기를 4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고자한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 대륙에 도착한 첫 이민자들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초기 이민자들의 빈곤상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던 미국은 영국과의 상시적 무역 적자를 겪어야했으며 산업이 성장할만한 인프라가 발달되지 못했다. 유통 화폐는 원시적이어서 콩, 보리, 조개껍데기 등을 사용하였다. 당연히 통화 유통량은 적어 산업이 발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유럽 통화 시스템과는 다른 자체 지폐를 발행하여 잉글랜드 은행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유럽 금융 재벌들은,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에도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 같은 민간 중앙은행 모델을 심고 싶어하였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치른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 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미국이 도로 건설과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채권의 주 고객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금융 재벌이었다. 독립 후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었고 재무장관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는데, 해밀턴은 중앙은행을 설립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신용을 개선하여야만 미국의 금융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1791년 미국

의회는 민간 은행의 미합중국 은행의 설립 법안을 통과 시켰다. 20년간의 운영 기간을 보장받고 설립된 미합중국 제1은행의 자본은 미 정부가 20%밖에 갖지 못하였고 나머지 80%는 유럽의 금융자본이 출자하였다. 민간 자본 중 대부분이 영국의 은행가에서 나온 자본이었기에 미국 남부의 여러 주들은 이 은행에 대한 반대가 심하였다. 결국 1811년 보장받은 20년 이후 정확히 1811년 미합중국 제1은행은 문을 닫게 되었다.

1812년 미국과 영국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는 1815년까지 이어졌다. 전쟁은 막대한 전비가 들어가므로 이는 필히 대상국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당시 미국도 전쟁으로 인해 국가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중앙은행이 없었으므로 각 주마다 은행들이 화폐를 발행했는데 시중에 풀린 많은 양의 화폐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 미국의 신용도는 악화되고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17년 다시 미합중국 제2은행이 출범하였고 제1은행과 마찬가지로 미 정부 자본 20%, 민간자본 80%의 중앙은행이었고 20년간 운영되었으며 1836년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 중앙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대통령들도 많았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민간 자본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 재벌의 미 의회에 대한 지속적 로비의 영향이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져 이제 민간 중앙은행의 필요성은 수그러들었지만 1861년부터 시작된 남북전쟁은 또다시 미국의 전비 지출로 재정이 악화되어 링컨 행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62년 미국은 최초의 법정화폐를 만들었는데, 당시 정부 통제 하에 있던 내셔널 뱅크가 소유한 미국채의 90% 내에서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는 민간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화폐로 그 당시 매우 혁신적이었다. 화폐는 녹색 잉크로 인쇄되어 그린백(Greenbacks)으로 불렸다.

영국은 1873년 일어난 대불황으로 금융패권의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온 유럽이 이 불황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그 과도는 영국에 더 거세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1968년부터 미국에서 철도 붐이 일어났다. 미국의 철도 건설은 유럽 자본가들에게 매력적이었고 자본이 유입되었다. 뉴욕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이는 유럽의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여 호황을 누렸지만 과도한 투자로 부실 대출이 문제를 일으켜 영국 은행들은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국 신용 경색으로 금융 위기를 초래하였다. 가까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된다. 현대 시대에도 그러하듯이 불황은 국가나 국민들로서는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 거대 자본을 지닌 투자 주체에게는 기회다. 부채에 시달리는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였지만 이 기회로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가 등장하였고 J. P 모건 같은 거대 금융 투자회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1873년 시작된 금융위기는 금보유고에 계속 실패하여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고 공황과 재정 실패가 계속되었다. 은행의 신용이 조금만 부족해도 뱅크런 사태가 빈번해졌으며 이는 또 다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앞으로 생겨날 미연방준비위원회 탄생의 원인이 된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치매예방

치 매

사랑스럽다. 예쁘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말투.

세월은 흐르고 흘러
내 나이 일곱 살이었던 시절이 바로 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내 나이가 환갑이라는 나이의 문턱아래까지 와 있다.

예쁜 눈동자, 미운 눈초리
당신의 얼굴은 다시 보아도 여전히 예쁘다.

고운 말투, 성난 말투
당신의 말투는 다시 들어보아도 여전히 아름답다.
당신의 얼굴, 나의 아버지 얼굴
당신의 말투, 나의 어머니의 말투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어머님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고
못 알아보게 될까봐 울고, 또 울고, 하루종일 평평 울었다.

두 번째로는 '나도 저렇게나 되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
에 울고, 또 울고, 하루종일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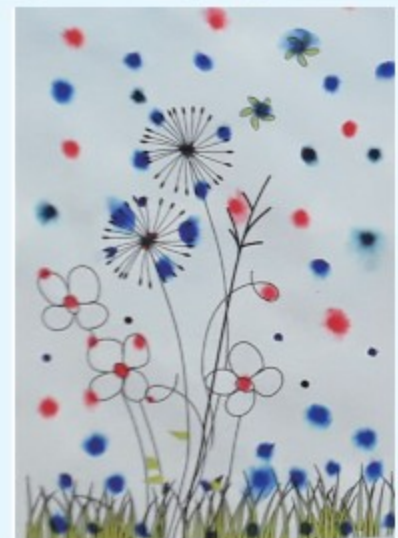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다독였다.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양전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자세히 바라보면 예쁘지 않은 꽃이 없다는
말처럼
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나의 이름을 깜빡깜빡 할지라도

그대는 나의 아버지이기에,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기에

처음에는 바라보기 싫었던 당신의 얼굴
두 번째로도 듣고 싶지 않았던 당신의 목소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제는 보고 싶다.
그리고 듣고 싶다.

자주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예뻐진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인가 보다.



박경임 기자 (qkrduddla8706@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이 될 때까지 키우고 가르쳐야 하니 제 집(몸뚱이)하나 관리하기 힘든 게 사람이다.

의학의 발달로 백세시대라고는 하지만, 첨단문화로 편리하게 사는 대신에 생존에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사고나 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죽음을 알리는 말도 여러 가지다.

하는 영결식을 하고 49재를 지내 명복을 빌어주고, 시신은 장례를 지내는 절차들은 산 자들의 몫이다.

우리들은 현실에 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어왔다. 서남을 만들어놓고 산신령에게 빌고, 십자가를 보며 예수께 기도하고, 불상을 모셔 놓고 절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마땅히 흙으로 돌려보내는 매장문화도 이어져 왔으며, 옛날에는 부모의 묘지에서 3년

한 산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화장 문화가 요즘에 대세다.

살면서 지은 죄가 컸으니 당연 불지옥으로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인지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불가마에 넣자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산화해서 항아리에 담겨져 유족에게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갈래 길이 있다.

유골을 받아 단단하게 만들어진 대리석 아파트인 납골당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화장으로 간편해진 유골함을 다시 매장하여 묘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생전에도 어렵게 살던 망자는 시설에서 만든 공동납골당이나 공원묘지에 입적시킨다든가 그것도 힘든 유족들은 강이나 산에 뿌려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묘지에 호화롭게 꾸며진 비석이라든가 납골당에 안치하기 위해 화장하는 환경오염도 바람직하지 않고, 땅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역시 쉬운 게 아니다.

“내가 죽거든 과일나무아래 묻어서 거름이라도 되게 하라”고 한 선각자의 유언이 돌아가야 하는 곳을 가리키는 듯하다.

세상은 윤회한다고는 하지만 한 번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인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할 일 다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다가 보람 가득 남기고, 왔던 곳으로 다시 잘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곳

“죽었다.” “사망했다.” “유명을 달리 하셨다.” “세상을 떠셨다.” “운명하셨다.” “작고하셨다.” “영면하였다.”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예부터 많이 써온 돌아가셨다는 말은 오히려 적게 쓰인다.

지상에 모든 생물은 생이 끝나면 자연에서 왔듯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를 지탱했던 정신은 영혼이 되어 신의 세계로 간다 하고, 몸을 구성하고 있던 수분은 물로 배는 석회로 살은 흙으로 모두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망자가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간 빈 집(몸)정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망자를 돌려보내는 일은 영혼을 위로

시묘를 살기도 했다.

산이 없는 서민은 공동장지에 비집고 매장해 작은 묘지를 만들고, 여유 있고 자손 번듯한 부자들은 죽어서도 넓은 유택에 생전 이력인 직함을 새겨 넣은 비석에 문인석까지 세우는가 하면 제당까지 마련하여 호화 장지를 만들어 놓기 경쟁이었다.

이들은 부모와 선조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효심이라 하고, 자손들에게는 본이라 하겠지만, 실은 명당 터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호화묘지 조성 자체가 선조들을 빌려 유자손들의 어깨를 세우려는 욕심일 뿐이다.

땅은 적은데 묘지로 쓰이는 것에 대

홍천군평생학습 제4탄

리코더 앙상블

리코더 합주로 듣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20여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4번째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음악활동실에서 실시되는 “리코더 앙상블”을 찾았다. 리코더는 세로로 연주하는 일종의 목관 악기로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에 전성기를 맞아 활발하게 발전하다가 음의 높낮이, 음역의 변화가 다양한 목관 악기의 등장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다.

이후 20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리코더 연주가 프란스 브뤼헨의 오래된 악기 연구 과정에서 리코더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그 분위기가 널리 퍼지면서 리코더의 청아하고 목가적인 음색으로 못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리코더의 종류는 독일식과 바로크식이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사용한 리코더는 독일식으로 바로크식과는 운지법이 다르다고 하며, 현재 많이 쓰이는 종류는 소프라노, 소프라니노, 테너, 알토, 베이스로 그 외에도 많은 리코더 종류가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아름다운 리코더의 선율이 귀를 스치고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10여명의 남녀 리코디스트와 강사님이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음악활동실에 들어서자 박경리 강사님의 열정적인 지휘가 특히 눈에 들어왔다. 이날 연주곡은 팡페라 가수 임형주의 노래로 유명한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마지막

부분을 연주하고 있었다. 듣는 순간 노래의 가사처럼 마치 천 개의 바람이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나는 듯 목관 악기 특유의 약간 거칠면서 목가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 지고 있었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듯한 박경리 강사님은 음악 인문학 강의중 중세음악 특강 과정에 리코더 연주를 들은 관계자 분들의 요청으로 리코더 반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빈 국립음대에서 리코더 전공을 하였고, 동경예대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으로 홍천에서의 문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채우실 만한 인재였다.

지금은 춘천에서 거주하며 서울로 강의를 다니시는데, 올 1월 춘천 국제古음악제 25주년 행사와 중세음악 부산 공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는 3일간의古음악 여행 MUSICA TEMPUS 예술 감독을 맡으셨다고 하신다.

홍천에서는 4년차 리코더 강의를 하시면서 2021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때 오프닝 공연과 2021년 전국 악기 경연대회에서 본선 진출하는 쾌거를 이룰 정도로 리코더에 진심인 강사이다.

이날 1.5미터 정도의 베이스 리코더를 연주하는 손화선님은 홍천에서 “화선농장”을 운영하며 3년차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리코더를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깊이가 있는 악기이며, 합주가 가능하고,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신다”고 말했다.



연습벌레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복습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주변에서 귀뜸해 주셨고, 어려운 점에 대해 묻자 “운지법이 서로 달라 배우기가 어렵고, 연습만이 살 길이며, 베이스는 호흡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끝으로 “리코더를 연주하다 보면 우울할 시간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홍천에서의 1인 1취미 갖기 중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고, 파트가 모이면 리코더 만으로도 피아노처럼 협주곡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

리코더 배우기로 노년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7월-8월 중순까지 방학 기간 후 홍천군에서 권장하는 평생학습센터의 문을 두드리라고 전하고 싶다.

서행연 (bonbon2202@naver.com)

행복나눔 빨래방

방문자 인터뷰 후기

행복나눔 빨래방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파란하늘에 따스한 햇빛이 잠깐... 잠마가 살짝 스쳐 지나가고 진한 먹구름 사이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별이 강하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어느 오후 저희 빨래방에 찾아온 손님 한 분을 맞이하였다.

그 손님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홍천을 여행하다가 잠시 들렀다고 한다. 강원도 홍천이라고 하면 산골 오지 마을을 연상하면서도 홍천에는 비발디파크 등 대형 숙박 레저시설이 있어서 관광 여행지로서는 최고의 산골 마을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홍천지역에 방문하다 보니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한다.

즉, 홍천은 시골마을이라서 산 또는 논과 밭이 전부 일 줄 알았는데 홍천읍에 들어서니 아파트 및 각종 상가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 어느 도시의 시내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행복나눔 빨래방에 잠시 들른 것이어서 길게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손님께서 행복나눔 빨래방을 마음에 꼭 들어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멀리서도 눈에 쉽게 될 정도로 외관상 인테리가 멋지게 잘 되어서 놀랐다고 한다. 밤에는 행복나눔빨래방 간판에 네온사인 불빛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니 밤에 꼭 와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빨래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실내가 등장해서 놀랐다고 한다. 그 한 칸에 대형 세탁기 2대, 대형건조기 2대, 운동화 세탁기 건조기가 놓여 있어서 이곳이 정말 대형 빨래방이라는 말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손님께서는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의 이곳저곳 빨래방에 가 보았지만 이렇게 큰 공간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세탁기, 건조기는 처음 보았다고 한다.

남다른 스케일과 간판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말 이곳이 특별한 곳을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빨래방이라서 다양한 종류의 빨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형 이불 및 운동화를 대형기계를 통해 세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

다. 그리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이 정말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 더 놀랐다고 한다.

즉,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새로웠다고 하였다. 즉, 단순한 빨래방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가 합성이 절로 나왔다고 한다.

*** 행복나눔 빨래방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

내가 흔히 알고 있는 빨래방은 무거운 빨래를 등에 지고 직접 빨래방에서 세탁 및 건조해서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해서 빨래감을 직접 수거해가고, 세탁에다가 건조까지, 다 말린 빨래를 집으로까지 다시 가져다준다고 하니가 혜택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복나눔빨래방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나눔 빨래방 파이팅!

박호관 기자(hokwan-park@daum.net)

홍천 여름축제

청정 자연 살아 숨쉬는 홍천 여름축제, 더위 쫓는다

홍천찰옥수수 축제 7월말 실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8월 3일

재)홍천문화재단(이사장 전명준)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흘동안 홍천강 둔치 주차장(홍천읍 신장대리 85)에서 '홍천찰옥수수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찰옥수수 축제는 체험과 홍보를 중심으로 천연 비누 만들기, 꼬마장승 만들기, 연고 만들기가 진행되었으며 옥수수 포토존, 옛날 주막재현 체험, 홍천군 농·특산물 홍보관 등이 다수 운영하여 충분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축제 26주년 기념 이벤트로서 옥수수 빨리먹기 대회, 옥수수 껍질까기, 옥수수 낚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서 홍천군민과 피서객들에게 여름휴가지로서 홍천을 추천장소로 각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오는 8월 3일(수) 오후 6시 꽃피공원(홍천군민을 위한 밤)을 시작으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젊음이 공존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펼쳐진다.

전야제에서는 거리퍼레이드, 초대가수 공연과 맥주 시음 행사를 즐길수 있고 토리숲에서 운영하는 본 축제에서는 물위에서 펼쳐지는 Wet Dance 대회와 무대공



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전야제 퍼레이드는 Wet Dance 참가팀과 함께 관내 댄스 학원, 동아리 등이 참가해 군민의 축제 한마당이 될 예정이다.

맥주축제의 주인공인 맥주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되는 테라를 중심으로 홍천수제맥주 브라이트 바흐, 유니에일, 에이엔씨 브로잉과 세계맥주인 블랑과 파올라너가 판매된다. 3년만에 돌아온 오감이 짜릿해지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와 옥수수의 존속함이 살아있는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코로나 이전 지난 2019년 약 18만명이 방문했다. 메디칼 허브연구소, 생그린 식품, 에이엔씨 브로잉 등의 식품바이오 기업이 선택한 홍천, 홍천강 맑은물과 청정 계곡이 있어 수제



맥주가 더 맛있게 익어가는 매력적인 홍천. 자연과 음악 그리고 시원기 맥주가 있는 낭만적인 페스티벌.

홍천도시산림공원 토리숲의 울여름은 소소하지만 낭만적인 휴양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줄 것이다. 자연과 음악이 있고 전국 최대 규모의 맥주공장이 있어 갖나온 신선한 맥주와 함께 홍천에서 다양한 무대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함께 즐겨보시길 권한다. 올해 축제도 홍천강변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형 환경 힐링축제가 될 전망이다.

축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에 와서 코로나19로 쌓였던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여(boy1145@hanmail.net)